

탈식민주의와 세계문학: 제임스 조이스와 박태원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 영 심

1. 들어가며

파스칼 카사노바(Pascale Casanova)는 「2000년 서울국제문학포럼」에서 “8세기 동안이나 영국의 지배 하에서 격렬하고 피비린내 나는 독립 투쟁과 끔찍한 진압을 당한 역사를” 가진 아일랜드가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더블린이라는 도시와 도시 생활을 재창조한 조이스”를 필두로 하여 예이츠(W. B. Yeats) 베케트(Samuel Beckett)등의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세계 문학 공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이슈와 미학을 수입,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개조, 채택”함으로써 “문학적으로 세계에 존재하게”된 것이라고 언급한다(337-38). 카사노바는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아일랜드가 오랫동안 강대국인 제국주의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기법들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문학적 실천을 통해 세계문학의 지형을 재구성”(윤지관 184)함으로써, 아일랜드 문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더블린이라는 도시와 도시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업 학문후속세대(학술연구교수) 사업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NRF-2014S1A5B5A02013411.

생활을 재창조한 조이스'라는 구절은 아일랜드 문학이 세계 문학으로 부상하는데 있어서, 조이스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조이스가 보여준 ‘완전히 새로운 언어’나 ‘혁신적인 이슈와 미학’은 아일랜드가 벌인 ‘정치적 투쟁’이나 ‘피비린내 나는 독립 투쟁’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가톨릭교회가 더블린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영국 제국”(Bulson 33)이 아일랜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 역시 조이스의 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일랜드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문제들이 집약적으로 녹아 있는 “마비의 중심”(Joyce, *SL* 83)인 피식민지의 수도 더블린은,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을 비롯하여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man*), 『율리시스』(*Ulysses*), 그리고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에 이르기까지 조이스의 주요 텍스트들의 중심 공간으로서 위치한다.

조이스는 이들 텍스트에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의 암울한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일랜드의 역사적 상황”에서 파생한 경제적인 “가난”(Hepburn 197)이라는 현실적 상황까지 포착한다. 또한 조이스는 “아일랜드가 가난한” 이유는 “교묘하고 잔인한” 영국이 “아일랜드의 산업을 파괴”(Joyce, *Occasional* 119)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억압을 자행하는 제국주의를 “수많은 통제 체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통제의 원형으로 간주”(Brivic 460)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적 지배와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탈식민주주의적 주제’는 조이스 문학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국의 식민지배하에 놓여 있었던 아일랜드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은 조이스 문학이 탈식민주주의적 주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인 동시에 그의 문학의 중요한 자양분이었던 것이다.

또한 “조이스에게 있어서 정치란 무엇보다도 ‘문체’를 통한 체현”(Milesi 1)이었으며, “언어를 통한 전복은 단지 언어만의 전복”으로 끝나지 않고 “식민지 모국의 통제 담론에 대한 전복”(Ashcroft et al. 48)을 함축하기 때문에, 빈센트 첵(Vincent J. Cheng)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이스가 시도한 “문체적, 언어적, 문학적 혁신들이 드러내는 혁명적 특징들”(4)은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정치적 탈식민주의 실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조이스는 제국주의 지배자의 언어인 ‘대문자 영어’(English)와 “동일성”을 가지면서도, “차이를 드러낼 있는 언어”인 ‘소문자 영어’(english)를 이용하여 “‘대문자 영어’의 특권화된 중심성을 폐기”(Ashcroft et al. 51)하고자 시도한다. 조이스 문학은 이렇게 내용과 형식 양자를 통해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글쓰기 자체가 정치적 행동”(Bulson 117)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한편으로, 카사노바는 같은 글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아시아의 아일랜드와 같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 근거로 한국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받고 자신의 특성과 다름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한 국가”이자, “여러 번의 외부 침입을 겪었고, 또 지배자에 항거해 저항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렀고, 자주권을 얻은 것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국가”(337)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를 가진 한국의 문학에서 탈식민주의적 주제를 중심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근거와 아울러, 한국 문학 역시 아일랜드 문학과 마찬가지로 세계문학의 일원이 될 잠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이스로 대표되는 아일랜드 문학을 전유”(오현숙 115)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이스와 “동시대인으로서의 동류의식 또는 경쟁의식을 갖고”(김미지, 「박태원의」 84)¹⁾ 있었던 박태원의 텍스트들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조이스와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한국에서 태어난 박태원의 텍스트에서도 탈식민주의적 주제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공통점은 두 작가의 텍스트에서도 뚜렷하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조이스나 박태원은 모두 제국주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민의 암울함과 식민지 지식인의 자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박태원의 언어나 문체 실험, 그리고 서사 양식에 대한 혁신적인 실험들 역시 조이스의 새로운 언어 실험이나 서사 양식 실험과 비견될 만한 혁신적인 요소를 드러낸다. 두 작가는 모두 기존의 서사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거부하고, 혁신적인 제 실험들을 통해 기존의 문학적 질서, 더 나아가 기존의 제국주의적 권력 관계를 해체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

1) 논문 제목은 「박태원의 외국문학 독서 체험과 ‘기교’의 탄생」임.

서 분석할 것이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나 언어실험을 중심으로 모더니즘적(혹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측면이나 “변화하는 문학적 문체를 통해서 젊은 예술가의 발전해가는 의식을 추적”(Lewis 159)하는 ‘예술가 성장 소설’의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텍스트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요소를 중심에 놓고서, 그러한 요소와 조이스가 시도한 새로운 형식적, 언어적, 문체적 실험과의 연관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제 측면들과, 다양한 양상으로 등장하는 ‘강자들’의 폭력과 억압에 대한 ‘약자’인 스티븐(Stephen)의 대응 양식의 변화와 결부시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박태원의 주요 텍스트들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먼저, “산책이라는 형식을 통해 현실의 공간을 재조직화함으로써 식민지 상황에 대한 부정과 비판”(백문임 494)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식민과 피식민을 가르는 분할을 횡축에 놓은 공간”(임미주 234)인 천변을 끌고 오는 『천변풍경』을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 지배로 인한 암울한 현실에 대한 박태원의 날카로운 포착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피식민지민의 피폐한 삶을 동경을 배경으로 더욱 극적으로 묘사하는, 「딱한 사람들」과 「사흘 굶은 봄달」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두 단편들에서 박태원은 일본 제국의 수도에서 일본인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삶과 피식민지민의 비참한 삶의 대조를 혁신적인 서사 기법과 독특한 언어 실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박태원이 가진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깊은 자의식”(방민호, 「1930년대」 195)²⁾을 드러내는 것임과 동시에 그의 혁신적인 미학이나 언어 실험이 탈식민주의적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젊은 예술가의 초상』 다시 읽기

탈식민주의가 제국주의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배

2) 논문 제목은 「1930년대 경성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임.

와 억압의 양상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저항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약자’이자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Spivak 104)인 어린 스티븐(아일랜드를 상징)이 다양한 층위의 ‘강자들’(제국주의를 상징)로부터 경험하는 억압의 양상들뿐만 아니라, 어린 스티븐이 성장하면서 그러한 억압을 극복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일종의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제임스 조이스가 제국주의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휘두르는 부당한 폭력, 역시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제국주의적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유년기와 소년시절을 주로 다루고 있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전반부에서, 스티븐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신체적으로 무기력하고 수동적”(Kershner 38)인 모습으로 그려지며, 그가 힘이 센 상급생이나 선생님들로부터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밤치기 내기에서 마흔 개의 밤을 물리친 자신의 “베테랑” 밤과 스티븐의 작은 코담배 상자를 바꾸자는 웰스의 요구를 스티븐이 들어주지 않자, 그를 어깨로 밀쳐서 변소 하수구 도랑에 빠뜨린 것은 비열한 것이었다. 하수구 물은 얼마나 차갑고 질척거렸던지! 한 친구는 도랑물 찌꺼기 속으로 커다란 쥐가 뛰어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P 7, 필자강조)

여기서 웰즈(Wells)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티븐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스티븐을 힘으로 밀쳐서 시궁창에 빠뜨린 행위는 분명 비열하고 부당한 행위이다. 그러나, 당시 강대국인 제국주의 영국이 약소국인 아일랜드를 지배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체구가 작고 약한 스티븐은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웰즈의 행동을 ‘비열한’ 행위라고 되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웰즈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스티븐에 대한 웰즈의 폭력이 신체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신적 차원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것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덜라스, 대답해 봐. 잠자러 가기 전에 너는 엄마에게 키스하니?” 스티븐이 대답했다. “응.” 웰스가 다른 학생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말했다. “애들

아, 내 말 좀 들어볼래. 잠자기 전에 엄마에게 키스하는 애가 여기 있단다.” 다른 학생들이 게임을 멈추고 돌아보면서 웃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 때문에 얼 굴이 벌개진 스티븐이 말했다. “키스하지 않아.” 웰스가 말했다. “애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잠자러 가기 전에 엄마에게 키스를 하지 않는 애가 여기 있단다.” 그러자, 학생들이 일제히 또 다시 웃었다. . . . 그는 온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순간 혼란스러웠다. 웰스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무엇일까? 자신은 두 개의 다른 대답을 했지만, 웰스는 여전히 웃었다. 그러나 웰스는 정답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상급반인 제 3 문법반 학생이었으니까. (P 10-11, 필자 강조)

웰즈가 물리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장면에서 스티븐은 비록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웰즈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만, 뜬금없이 스티븐에게 잠자기 전에 어머니와 키스를 하는 지의 여부를 묻는 이 장면에서 그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즉,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도 그리고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Peake 71) 스티븐은 혼란스러워하면서, ‘웰즈는 옳은 대답을 알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한다. 이 장면은 바로 약자에게 강자인 제국주의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오리엔탈리즘’의 담론 전략, 즉 “담론적으로 동양을 서구에 ‘열등한 타자’로서 만들어 냄으로써, 동양에 대한 서구의 헤게모니를 강화”(Gilbert 39)하는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을 드러낸다. 이 장면에서 웰즈는 자신을 모든 옳고 그른 행위의 판단 주체로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이 스티븐에게 가한 물리적 폭력의 부당함에 대해 스티븐이 따질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만든다. 조이스는 이 장면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물리적 폭력과 이데올로기적 억압이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측면은 ‘강자’인 돌란(Dolan) 신부가 ‘약자’인 학생 스티븐에게 체벌이라는 부당한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다.

“게으름이나 피우고 빈둥거리는 작은 건달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학감이 소리쳤다.

“안경을 깨뜨렸다고! 학생들이 즐겨 쓰던 낡은 수업을 쓰다니! 당장 손을 내밀어라!” . . . 막대기가 부러질 때 나는 커다란 소리와도 같은, 뜨겁게 타는 듯한 날카로운 아픔을 동반한 회초리의 타격 때문에 스티븐의 떨리는 손은 불길 속에 던져진 나뭇잎처럼 오그라들었다. 회초리 소리와 그것으로 맞은 고통 때문에 스티븐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솟아났다. 그의 온 몸은 공포

로 떨고 있었으며, 팔도 떨고 있었다. 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오그라들고 검푸른 색으로 변한 손은 허공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비명 소리가 그의 입술에서 새어 나왔고, 기도 소리도 새어 나왔다. (P 51, 필자 강조)

여기서 돌란 신부는, 스티븐에게 체벌을 가하기 전에 그를 ‘게으름이나 피우고 빈둥거리는 작은 건달 같은 녀석’(Lazy idle little loafer)라고 규정한다. 반에서 1, 2위를 다투는 모범생인 스티븐은 “교회의 권위를 남성적으로 구현”(Castle 364)하는 돌란 신부에 의해, 순식간에 ‘게으름이나 피우고 빈둥거리는 작은 건달 같은 녀석’로 전락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돌란 신부와 스티븐 둘 중에서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힘과 권력이 더 센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정해진다는 사실이다. 즉, 강자의 권위에 의해 약자는 ‘악,’ 혹은, ‘잘못을 저지는 자’로 규정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어린 스티븐이 받는 정신적 충격을 강조하기 위해 조이스는 문학적 기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즉, ‘나뭇잎’의 비유나 ‘직유법’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스티븐이 느끼는 고통을 마치 독자가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이것은 스티븐의 손바닥에 가해지는 고통이 단지 육체적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식에 또렷이 각인되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조이스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돌란 신부라는 ‘강자’가 휘두르는 부당한 폭력을 당하는 스티븐의 내면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스티븐의 내면의식 속에 각인된 이 고통은 궁극적으로 가톨릭종교의 권위에 대한 그의 믿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당한 폭력을 휘두르는 가톨릭 종교에 대해 저항의식을 배태시킨다.

학교 혹은 선생의 권위를 가진 ‘강자’가 스티븐에게 가하는 폭력은, 2장에서 테이트(Tate) 선생이 스티븐의 글을 ‘이단적’이라고 선고하는 장면을 통해 다시 한 번 나타난다.

어느 화요일, 스티븐의 승리의 행로는 참혹하게 무너졌다. 영어를 담당하는 테이트 선생님이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통명스럽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이 학생의 에세이에는 **이단적 요소**가 들어 있군.” 적막감이 교실

에 내려앉았다. . . . 스티븐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날씨가 아직은 쌀쌀한 봄날 아침이었다. 스티븐의 눈은 여전히 따끔거렸고 시력도 약했다. 스티븐은 실패를 인식했다. 자신의 마음속의 비열함과 자신의 집의 천박함을 들켰다는 것도 의식했다. (P 83, 필자 강조)

테이트 선생이 반 친구들 앞에서 스티븐의 글에 이단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웰즈에게 당한 물리적 폭력이나 돌란 신부의 체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가톨릭계 학교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단적’이라는 선고를 당한 스티븐은 학교 사회의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 이단자를 붙잡아라,” 헤론이 소리쳤고, 순식간에 스티븐은 포로가 되고 말았다. . . .

“바이런이 훌륭한 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

“안 해.”

“인정하라니까.”

“안 해.”

“인정해.”

“안 해. 안한다고.”

마침내 스티븐은 그들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어서야 가까스로 몸을 빼낼 수 있었다. 괴롭히던 녀석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존즈가 쪽으로 도망쳤다. 반면에 온 얼굴에 생채기가 나고 별경게 상기되었을 뿐 아니라, 눈물 범벅이 된 스티븐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비틀거리며 그들 뒤를 따라 걸어갔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흐느꼈다. (P 85-86, 필자 강조)

스티븐의 라이벌인 헤론(Heron)을 비롯한 학교 친구들은 테이트 선생에게 이단으로 낙인찍힌 스티븐을 마구 공격하면서 그의 문학적 가치관을 바꾸도록 강요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용된 “인정해(admit)”라는 단어는 스티븐의 정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다수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강자의 폭력을 강조하여 드러낸다. 이처럼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전반부에서는 아직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자’인 스티븐이 당하는 부당한 폭력의 양상을 점층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조이스는 강자의 위치에 놓인 영국 제국주의와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식민지 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킨다.

스티븐이 경험하는 부당한 폭력의 양상을 통해서 강자인 영국제국주의와 약자인 아일랜드 사이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텍스트 곳곳에 직,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들이다. 제 1장에서 등장하는 마이클 다빗(Michael Davitt)과 찰스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은 당대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독립 운동가들이며, 해밀턴 로완(Hamilton Rowan)과 ‘해방자(The Liberator)’로 지칭되는 다니엘 오코넬(Daniel O’Connell), 그리고 울프 톤(Wolfe Tone)과 테렌스 맥마누스(Terence Bellow MacManus) 역시 과거 아일랜드 독립 운동가들이다. 또한 이 텍스트에는 식민지 지배자로 군림했던 악독한 영국인들이나 혹은 아일랜드인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편에 붙었던 파렴치한 인물들도 수없이 등장한다. 악독한 영국인 지주였던 레이트림경(Lord Leitrim)이나 아일랜드와 영국의 합병을 주도한 영국인 마르케스 콘웰리스(Marquess Cornwallis)총독, 그리고 영국 편에 섰던 성직자들인 라니간 주교(Bishop Lanigan), 윌리엄 왈쉬 신부(The Reverend William J. Walsh)와 마이클 로구신부(The Reverend Michael Logue)와 폴 쿨린(Paul Cullen)등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아일랜드 비빌 결사였던 “하얀 소년들”(Whiteboys) “페니언 운동”(The Fenian Movement), 간접적으로 암시되는 “1798아일랜드 봉기”(The Irish Rebellion of 1798)와 이 봉기를 이끌었던 결사단체인 “더블린 결사”(The Dublin Society of United Irishmen) 역시 모두 아일랜드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또한 무심코 등장하는 지명들 역시 아일랜드의 독립투쟁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장에서 스티븐이 집에 가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경유하는 마을 중의 하나로 등장하는 보덴스타운(Bodenstown)이다. 클레인(Clain)과 셀린즈(Sallins) 사이에 위치하는 이 마을은 아무런 설명 없이 지명으로만 간단히 등장한다. 그러나, 이 곳이 앞서서 언급한 18세기의 독립 운동가 “울프 톤이 묻혀 있는 곳”(Howes 73)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보덴스타운이라는 지명 역시 아무 의미 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지난한 독립운동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이스는 텍스트 곳곳에 아일랜드 독립 운동의 흔적들을 배치함으로써,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식민 지배의 역사와 그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끊임없이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더블린(Dublin)의 구체적인 거리의 이름들과 코크(Cork), 위클로우(Wicklow), 툴라베그(Tullabeg), 킬데어(Killdare), 아사이(Athy),

먼스터(Munster) 아일랜드의 지역 이름들, 그리고 레몬 막대 사탕(Lemon Platt)이나 까쉬(Cachou)같은 과자의 이름, 또한 달리(Ally Dally)나 스머깅(smuggling)과 같은 아일랜드 고유 언어, 더 나아가 “딩둥! 나의 영혼은 저 멀리 떠나네”(Dingdong! My Soul Away)나 “푸른 눈과 황금빛 머리카락”(Blue Eyes and Golden Hair)과 같은 아일랜드의 전통 가요들을 반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 텍스트의 공간이 아일랜드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킨다. 이를 통해서 조이스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 자체가 바로 제국주의 영국과 식민지 아일랜드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의 공간임을 강조한다.

III.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박태원의 텍스트 다시 읽기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가 식민지의 수도인 ‘더블린’을 배경으로,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 제국주의의 지배로 인한 암울한 삶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식민지였던 193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살고 있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천변풍경』 역시 “일제강점기 식민지의 수도였던 경성”(유철상 693)을 배경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타자”(홍혜원 232)로 내몰린 식민지민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포착하여 보여준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에 대한 묘사에서도 이 점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낮의 거리 위에서 구보는 갑자기 격렬한 두통을 느낀다. 비록 식욕은 왕성하더라도, 잠은 잘 오더라도, 그것은 역시 신경쇠약임에 틀림없었다. . . . 그러나 부실한 것은 그의 왼쪽 귀뿐이 아니었다. 구보는 그의 바른쪽 귀에도 자신을 갖지 못한다. . . . 그리고 다음 순간,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94-96, 필자강조)³⁾

이렇게 신경쇠약에 걸려 두통에 시달리며, 청각과 시각마저 손상된 구보의 건강

3) 이하, 『구보』로 표기함.

상태는 스물여섯이라는 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님은 분명하다. 마치 조이스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더블린 사람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마비’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한 것처럼, 박태원 역시 제국주의 일본의 지배 하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육체적인 질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박태원은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단지 육체적 질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갑자기 구보는 온갖 사람을 모두 정신병자라고 관찰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실로 다수의 정신병자가 그 안에 있었다. 의상분열증, 언어도착증, 과대망상증, 추외언어증, 여자음란증, 지리멸렬증, 질투망상증, 남자음란증, 병적기행증, 병적허언기편증, 병적부덕증, 병적낭비증 (『구보』 151, 필자강조)

구보가 나열하는 이러한 정신 질환의 종류들은 일종의 언어유희적인 측면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경성 거리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처럼, 박태원은 제국주의 일본 지배하의 억압된 당시의 암울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질병적 징후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또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도시 체험을 통해 “식민지 근대 도시 경성의 지리도”(이정석 367)를 그려낸다. 구보의 산책을 따라 진행되는 텍스트에서 경성 한복판에 “일본 제국주의 모습은 식민지 지배 권력이 가시화된 상징 건축물”(송기섭 435)인 “식민지적 권력을 상징하는 총독부”(조은주 268)를 배치함으로써, 당시 경성이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황금광시대 . . .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 인지대 백원. 열람비 오원. 수수료 십원. 지도대 십팔전 . . .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의 칠할. 황금광 시대 . . .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 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령,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구보』 117, 필자 강조)

그리고 이 총독부 청사 내에 위치한 ‘광무과 열람실’은 물질만능주의를 풍자하는 “‘황금광(黃金狂)시대’의 주체가 궁극적으로 일본제국주의임을 폭로”(정현숙, 「1930년」 60)⁴⁾한다. 구보의 눈을 통해 “식민지 수도 경성에 투영된 부패와 퇴폐의 양

상”(방민호, 「박태원」 64)⁵⁾이 서서히 드러나고, 그의 산책은 “식민지 수도에 가지적, 비가지적으로 결집되어 있는 식민 권력의 역학 관계를 주변부에서 진원지로 향하면서 섬세하게 확인하는 과정”(정현숙, 「박태원」 291)⁶⁾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인 셈이다. 구보는 이 과정에서 근대 전차와 기차역, 그리고 다방과 백화점등과 같은 경성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진행되는 일제의 수탈에 시달리는 “그렇게도 구차한 내 나라”의 비참한 모습을 확인한다. 또한 이곳에 사는 식민지 지식인과 예술가들 역시 “가난한 소설가”와 “가난한 시인”(『구보』 147)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드러낸다.

한편으로 경성의 변두리인 청계천 주변의 “밀바닥 인생들의 삶의 이야기”(김미지, 「한」 92)⁷⁾ 즉, “비참한 삶을 이어가는 경성 하층민, 매춘으로 삶을 영위하는 카페 여급,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주류사회에서 배제된 지식인과 같은 사회적 소외 계층의 삶을 형상화”(변찬복 196)하는 『천변풍경』에서는 『더블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다 일상적인 삶 속에 침투한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양상을 포착하여 드러낸다. 경성의 변두리인 천변은 ‘식민지 근대라는 어두운 역사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며, 특히 빨래터에 처음 온 여인네에게 돈을 내라고 다그치면서 “우선 해마다 경성부청에다 갖다 바치는 세금만 해도 수십환야”라는 샘터 주인의 말은 당시의 일상적 생활 곳곳에 침투한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상기시킨다. 이밖에도 고무신에 밀리는 재래식 신발가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빨래터에서 노름을 벌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역시,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수탈로 인해 황폐화된 당시의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치들이다.

조이스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더블린의 거리의 이름이나 건물의 실제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통해 텍스트의 공간이 아일랜드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박태원 역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천변풍경』에서 당시 경성에 있었던 실제의 거리나 건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소환하는 것을 통해 텍스트의 공간이 한국(조선)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특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산책 모티브를 활용하여, 그 동선을 따라 천변, 광

4) 논문 제목은 「1930년 도시 공간과 박태원 소설」임.

5) 논문 제목은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개체성의 인식과 표현」임.

6) 논문 제목은 「박태원 소설의 내부텍스트성 연구」임.

7) 논문 제목은 「한 전업 글쟁이의 마침표 없는 붓 달리기」임.

교, 화신 상회, 그리고 전차 노선인 동대문, 경성 운동장, 장충단, 청량리, 성북동을 등장시킨다. 이 밖에도 창경원, 한강교, 훈련원, 약초정, 조선은행, 남대문, 경성역, 종로 네 거리 등이 구체적인 지명들이 수없이 출몰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들 텍스트의 공간이 한반도라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박태원 역시 조이스와 마찬가지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천변풍경』이 두 텍스트 자체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의 욕망’과 이에 대해 저항하고자 하는 ‘피식민지민의 욕망’이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반복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음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박태원은 “제국과 식민지의 역학 관계와 식민지배 체계를 드러내는 필수적인 장소”(권은 356)인 동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두 단편 「딱한 사람들」과 「사흘 굶은 봄달」을 통해, 조이스의 더블린이나 박태원 자신의 경성보다 더 강력하게 탈식민주의적 주제를 부각시킨다. 1930년대 일본에게 닥친 대공황으로 타격을 입은 일본은 피식민지인에 대한 착취를 보다 노골화하였다. 특히 「딱한 사람들」에서는 “세계대공황을 맞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이국땅에서 빈곤에 허덕이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권은 371)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미 수일 동안 끼니도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하루 종일 굶어야만 하는, 순구와 진수의 피폐해진 내면을 통해 ‘동경’의 타자로서, 즉, 일본 제국주의의 타자로서 살아가야하는 조선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순구와, 진수와 같이 한 방에서 지내 오면서도 근래는 서로 말을 주고받은 일조차 드물었다. . . . 굶나, 오늘 또 굶나. 순구는 베개를 고쳐 베고 또 한 번 선탄품을 하고, 굶는 것을 할 수 없다하더라도 담배, 담배나 있었으면. 담배는 있었다. . . . 어제 잘 자리에서 세어보니, 그렇다. 다섯 개. 분명히 다섯 개. 그러나 그가 머리맡에서 담뱃갑을 찾아 들었을 때, 그 속에는 담배가 두 개 밖에 들어 있지 않았었다. . . . $5-2=3$. 틀림없이 진수는 세 개다. . . . 자기가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자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진수가 부당한 이득을 꾀하였다면, 순구에게는 그의 소행이 가증하게까지 생각되었다. (『성탄제 외』 224-25, 필자 강조)

여기에서는 사이가 좋았던 두 친구가 ‘궁핍한 생활’로 인해서 담배 한 개비에도 서로를 경원시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변모한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또한 순구가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살펴보는 신문의 “삼행광고”나 “고입란”(『성탄제 외』, 225)등의 일본어식 표현들은 두 인물이 거주하는 공간이 일본 제국의

수도인 동경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것은 이들이 이 곳에서 나라를 잃은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환기시킨다. 이렇게 박태원은 “조선인/일본인과 조선어/일본어의 대립현상”(권은 357)을 통해, 동경이라는 공간에 도사리고 있는 제국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동경은 나라가 없는 순구와 진수를 극단적인 궁핍과 굶주림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삭막한 공간이다.

이처럼 동경은 “식민지의 본격적인 체험인 동시에 식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정현숙, 『박태원』 296)의 공간이며, 박태원은 동경을 배경으로 하는 다른 텍스트인 「사흘 굶은 봄달」에서는 극도의 궁핍을 경험하는 춘삼의 모습과 일본인들의 풍요로운 삶과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조선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춘삼이는 일차 장사진을 이루고 치고 있는 로텐(노점) 앞에까지 이르러 드디어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탬푸라, 시루코(단팔죽), 오넵, 야키도리(세고기 꼬치구이), 우동, 소바(메밀국수), 이마가와야키(풀빵). 이러한 것들의 혼합된 냄새가 그의 텅 빈 창자 속으로 사정없이 스며든 까닭이다. 춘삼이라는 한참을 그 앞애가 서서, 참말 맛있게 먹고, 마시고, 들이켜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움’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 . . “단 십전이라고 있었으면 . . .” 헛침이 몇 번씩 몇 번씩 그의 목구멍을 괴롭게 넘어갔다. **이들째 공짜 물만 들이 킨 뱃속에서는 생각난 듯이 또 쭈룩 소리를 내었다.** 머리가 견디기 어렵게 어지러웠다. 춘삼이는 얼빠진 사람같이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다. (『성탄제 외』 85-86, 필자강조)

여기서 박태원은 일본 노점의 구체적인 음식명을 일본어로 나열하는 언어 기법을 통해 “제국의 중심인 동경의 물질적 풍요로움은 음식의 구체적인 형태로 조선인 노동자들의 눈앞에서 가시화”(권은 375)시킨다. 이러한 풍요로는 음식들은, ‘이들째 공짜 물만 들이 킨’ 조선인 춘삼이의 ‘텅 빈 창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을 살 수 있는 단 ‘오전’조차 없는 절대적 궁핍에 몰려 있는 춘삼의 처지와, 풍요롭게 먹고 마시면서 마음껏 즐기고 있는 동경의 일본인들의 모습의 대조는 ‘일본어’로 상징되는 일본인들과 춘삼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조선인 사이의 대조로 발전된다. 이것은 또한 당시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인들의 정치적 소외가 바로 경제적 소외로 이어지

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사흘 굶은 봄달」의 주요 배경인 “아사쿠사 공원은” 특히 “술과 계집, 오락을 원하는 사람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배고픔과 싸우는 성춘삼에게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들”(김정화 354)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아 봄이다. 봄이다. . . .” 그는 다시 제 벤치 위에도 몸을 내어던지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봄이든 여름이든 그게 무슨 상관인 있단 말이고? . . . “아 밥이다. 밥이다. . . .” 그러자 저편 수족관 이층 카지노 폴이에서 재즈가 들려왔다. ‘가게오 시타데(그림자를 따르며)’인지 무엇인지이다. 춘삼이는 그 소리에 새삼스러이 이곳이 아사쿠사 공원이라는 사실을 강렬하게 의식하며 그와 함께 이곳에 환락을 구하여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십만 명도 더 된다는 말을 누구에서인지 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내고, 기운 없이 후하고 숨을 쉬었다. (박태원 『성탄제 외』 86, 필자 강조)

춘삼이의 눈은 아사쿠사 공원에 찾아온 봄기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쿠라가 한창”(『성탄제 외』 82)이고, “열두엿”살 쫓 되어 보이는 “계집애”가 파는 “회고 누르고 붉은” 꽃들에서 봄다운 생기를 느끼고, “암캐와 수캐의 랑데부”(『성탄제 외』 86)를 보면서 그는 자신과는 상관없이 봄이 온 것을 느낀다. 또한 그의 귀 역시 이곳에 울려 퍼지는 재즈 음악을 통해 “환락”의 기운을 포착한다. 초목들과 동물들마저도 새 봄의 활기를 드러내는 아사쿠사 공원에서 봄의 활기와는 거리가 먼 궁핍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오직 춘삼이 뿐이다.

특히, “아 봄이다. 봄이다.”와 “아 밥이다. 밥이다.” 이 두 문장은 박태원 특유의 말장난을 통해 춘삼의 내면과 외부의 모습의 대조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에서 단 한어, 즉 “봄”이라는 단어를 “밥”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뿐이지만, 두 문장이 함축하는 바는 극명하게 같린다. 이처럼 박태원은 새로운 언어적 실험을 통해 탈식민주의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즉, 봄은 새로운 활기와 즐거움을 환기시키는 계절이며 아사쿠사 공원은 그러한 분위기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과 음악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면서, “술과 계집과 오락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십만 명”이나 되는 일본 사람들 사이에 서 춘삼은 오히려 자신의 헐벗고 굶주린 상태를 더욱 절감한다. “헐벗은 놈”인 춘삼에게 찾아 온 “겨울”은 아직도 “굶주린 놈”인 그에게 결코 봄으로

바뀌지 않는다. 춘삼에게 봄보다 더욱 더 절실한 것은 밥이다. 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에게 결코 봄을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태원은 일본제국주의의 심장부인 동경을 배경으로 험벗고 굶주린 겨울이라는 이미지와 새로운 활기로 가득한 봄이라는 이미지의 대조를 극대화시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들의 현실적인 궁핍과 아울러 절망적인 심리상태를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이스가 수도인 더블린을 중심으로 영국 제국주의의 지배로 인한 아일랜드의 피폐화의 흔적을 드러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태원 역시 당시의 수도인 경성을 중심 공간으로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폐해를 다각도에서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박태원은 자신의 동경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어 기법을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 수도인 동경을 배경으로 소외된 조선인들의 삶과 풍요로운 일본인들의 삶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킴으로써 탈식민주의적 주제를 보다 강력하게 부각시켰다.

IV. 탈식민주의적 공간의 모색:

기존 권력 관계의 전복과 혁신적인 기법 실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임스 조이스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더블린을 중심으로, 그리고 박태원은 『구보씨의 일일』을 비롯한 여러 텍스트들에서 경성과 동경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억압받고 고통 받는 약자들의 상황을 드러내었다. 두 작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식민적 공간을 탈식민적 공간으로 전환시키고자하는 시도한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는 ‘약자’였던 스티븐이, ‘강자들’이 힘을 가진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관을 당당히 정립하는 것을 통해 탈식민주의적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이스는 ‘성장 소설’이라는 형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5장에서 대학생으로 성장한 스티븐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전의 어린 스티븐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스티븐은 “영혼의 대장간”에서 “자신의 종족의 아직 창조되지 않은 양심을 버리는 자”(Portrait 275-76), 즉 ‘가톨릭의 사제’가 아닌 ‘세속의 사제’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여기서 스티븐의 작가로서의 위상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새로운 세계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이다.

작가로서 스티븐이 성장할 것이라는 측면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전반부에서도 여러 번 암시된다. 특히 스티븐이 산수 시간에 샘을 누가 먼저 푸는가의 승패에는 관심 없이, ‘녹색 장미’(a green rose)를 떠올리는 장면은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이다.

스티븐은 최선을 다했지만, 산수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머릿속이 뒤엉켰다. 입고 있는 재킷의 가슴에 편으로 고정시켜 놓은 흰 색 비단으로 만든 장미 배지가 필러거리기 시작했다. . . . “맞았다. 랭카스터 팀 만세! 빨간 장미가 승리했구나. 자, 이제 요크 팀, 분발해야지!” . . . 스티븐은 산수 문제를 풀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흰 장미와 빨간 장미. 생각하면 아름다운 색깔이었다. 일등, 이등, 삼등을 표시하는 색깔 역시 아름다웠다. 분홍색, 크림색, 그리고 라벤더 색. 라벤더 색 장미, 크림색 장미, 그리고 분홍색 장미. 모두 아름다운 색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야생 장미도 아름다울 것이다. 그는 차그마한 푸른 들판에 야생 장미가 피었다는 내용이 담긴 노래를 기억했다. 그렇지만 녹색 장미는 없었다. 하지만 아마도 세상 어딘가에 녹색 장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 (P 8-9, 필자강조)

영국의 ‘장미 전쟁’(Wars of the Roses)의 두 주체였던 랭카스터와 요크 두 팀으로 나누어 승부를 가리는 산수 시간, 즉, 산수 시간마저도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힘겨루기인 ‘전쟁’ 이미지가 장악하고 상황에서, 스티븐은 그러한 ‘경쟁’을 포기하고 장미들의 아름다운 색깔에 집중한다. 이 순간, 스티븐은 ‘장미 전쟁’이 함축하는 전쟁의 논리나 이기고 지는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에서 장미라는 사물을 응시하기 시작한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는 장미가 아닌 “‘녹색 장미’를 정확하게 호명함으로써 미처 의식하지 못한 채, 스티븐은 녹색장미를 세상에 등장시킨다”(Bulson 53). 이는 스티븐이 무의식적으로나마 이미 기존의 가치관을 뛰어 넘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그가 등장시킨 이 ‘녹색 장미’는 전쟁을 포함한 기존의 경쟁 위주의 가치관과는 달리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이 녹색장미는 파넬의 옷술 색에서부터 출발하여 일관되게 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독립을 상징하는 색이다. 그러므로 녹색 장미는 스티븐이 추구할 새로운 세계인 동시에 아일랜드의 독립 양자를 모두 가리키는 양가적 의미를 드러낸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 후반부에서 스티븐은, 자신이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전적으로 자유롭게 예술의 양식이나 삶의 양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할 것”(Portrait 268-69)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힌다. 이것은 5장 중반부에서 린치(Lynch)에게 자신의 미학을 이론을 자신 있게 설명하는 스티븐의 모습과 맞물리면서, 1장에서 웰즈에게 부당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의 질문에 당황하던 스티븐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스티븐은 더 나아가 “가정이나 조국, 혹은 교회”(Portrait 268)와 같은 그 어떤 외적인 권위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을 통해 그가 더 이상 ‘약자’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이러한 내용적 측면과 아울러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조이스가 보여준 언어와 서사 기법에 대한 혁신적인 실험 역시 조이스가 ‘영국 작가들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데 일조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스티븐(혹은 조이스)이 그 누구보다도 (대문자) 영어에 대한 날카로운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언어는 나의 것이 되기 이전에 그의 것이었다. 집, 예수, 맥주, 선생님이라는 단어들이 그의 입술에서 발음될 때와 내 입술에서 발음될 때 얼마나 다른 것인지! 나는 영혼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서 이러한 단어들을 말하거나 쓸 수 없다. 너무나 친숙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선 학감의 언어는 나에게는 항상 후천적으로 습득된 언어로 남을 것이다. 나는 이 단어들을 만들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내 목소리는 그 단어들을 저지한다. 나의 영혼은 그의 언어의 그늘 속에서 초조함을 느낀다.’ (P 205, 필자강조)

여기에서 스티븐은, 영혼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남’의 언어이자, ‘습득된 언어’인 지배자의 언어인 영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식민지인의 고통스러운 자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스티븐은 이러한 자의식의 토대 위에서 ‘대문자 영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유한 ‘소문자 영어’로의 전환을 통해서 지배자의 언어인 제국주의 영국의 언어를 극복한다.

조이스는 먼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각 장의 언어들을 스티븐의 성장 과정

이나 정체성의 확립과정과 조응하도록 배치한다. 1장에서는 유년기의 스티븐의 언어를 반영하는 철자도 제대로 맞지 않은 언어를 등장시키거나 전반적으로 단순한 문장을 사용한다면, 4장과 5장으로 진행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철학이나 미학 등의 어려운 용어나 복문의 문장을 주로 사용한다. 또한 스티븐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웠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텍스트의 결말부분에서 3인칭 시점으로 진행되어왔던 지금까지의 서사를 과감하게 1인칭의 ‘일기 형식’으로 전환한다.

4월 26일. 어머니는 내가 새로 산 중고 옷들을 정리하고 계신다. 어머니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서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 지를 배울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환영한다, 오 인생이여, 경험의 현실과 백만 번 조우하고, 나의 민족의 아직 창조되지 않은 양심을 내 영혼의 대장간에서 버리기 위해서 나는 가노라.

4월 27일. 옛 아버지시여, 오랜 명장이시여, 지금 제 옆에 계서 주시고 또 저를 영원히 도와주소서. (P 275-76, 필자 강조)

여기서 1인칭 일기 형식이 철저하게 1인칭 주체의 관점에서 외부의 상황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라는 고려한다면, 일기 형식으로의 전환은 스티븐이 외부의 그 어떤 권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아를 구축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기도는 신에게 드리는 것이지만, 그 기도를 ‘오랜 명장’에게 바치는 마지막 구절을 통해 스티븐이 가톨릭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스티븐이 자신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권위와 억압으로부터의 벗어남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스티븐의 의식 속에 가톨릭의 권위와 늘 함께 결부되어 있던 영국 제국주의의 권위로부터 벗어난 것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태원 역시 암울한 현실을 재현하면서도, “제국의 지배와 통제를 넘어설 수 있는 공간의 긍정적 가능성을 탐색”(오현숙 122)하면서, 젠더적 ‘현실 권력관계’나 계급이나 계층의 ‘현실 권력 관계’를 뒤집어 놓은 공간을 텍스트 곳곳에 배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천변 풍경』의 첫 절인 ‘청계천 빨래터’의 배경이 되는 빨래터 공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빨래터는 “일상성의 층위에서 전통과

근대, 자본과 착취, 식민과 피식민 등이 뒤섞인”(임미주 235) 복잡한 공간으로 당대 피식민지민들의 삶의 구차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공간이다. 동시에 이 공간은 현실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뿐만 아니라 담론 권력에서 가장 소외된 사회적 최하층민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차단되어 있는 ‘아낙네들’이 마음껏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적 공간이라는 매우 중요하다. 즉, 피식민지 사회의 하층 여성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차단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태원은 텍스트의 도입부분을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과감성과 혁신성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술과 웃음을 파는 카페 여급인 기미꼬가 딱한 처지에 놓인 금순을 도와서 함께 살 계획을 세우는 장면에서 발화되는 그녀의 목소리는 앞서서 등장하는 민주사나 만돌아범과 같은 남성 인물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강력한 여운을 남긴다.

오직 혼자서 외롭게 걸어온 길-. 그것은 어쩌면 죽는 날까지 끝대로 통할 것인 지도 몰랐고, 또 그렇더라도 자기는 아직 역시 애달프고 고개 숙여 걸음을 내딛는 수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그러한 것을 혼자 슬퍼하지 않아도 좋았다. 한 가지 불행한 동무들과 함께, 서로 믿고, 의지하고, 깊은 사랑과 따뜻한 것을 가져갈 때, 참말‘삶’의 기쁨은 샘과 같이 서로서로의 가슴속에 용솟을 칠 것이다. (『천변풍경』 202-03, 필자강조)

기미꼬는 금순을 팔아넘기려는 남자를 언변으로 단숨에 제압할 정도로 호기가 넘칠 뿐만 아니라, 금순이나 하나꼬에 대한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인물로, 기미꼬의 이 언술은 술과 웃음을 파는 카페 여급에 대한 선입견을 깬다. 뿐만 아니라 그녀보다 사회의 상층에 위치하는 다른 남성 인물들보다 더 훌륭한 언술을 보여주고 있다. 박태원은 또한 ‘방황하는 처녀성’이라는 절에서는 마치 『울리시스』에서 몰리(Molly)가 내적 독백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아무런 제약 없이 그대로 발화하듯이, 비록 3인칭 서술이기는 하지만, 금순이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내에 대한 욕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과감함을 보인다.

한편으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제시하는 탈식민주의적 비전은 구보씨의 직업인 ‘소설가’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종의 메타소설적 속성을 드러내는 이 텍스트에서 ‘구차하고 가난한 소설가’ 구보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은, 예술가(작가)로서의 소명을 깨닫는 스티븐 디털라스와 마찬가지로 ‘글쓰기’가 될 것이다. 박태원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실로 다양한 서사 실험과 언어 실험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박태원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보여주는 혁신적인 글쓰기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어머니는

아들이 제방에서 나와, 마루 끝에 놓인 구두를 신고, 기둥 못에 걸린 단장을 떼어 들고, 그리고 문간으로 . . .

아들은

그러나, 돌아와, 채 어머니가 무어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입때 안 주무셨어요, 어서 주무세요, 그리고 자리옷으로 갈아입고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펴 논다

일찍이

구보는, 벗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 . .

다방의

오후 두 시, 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 등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 . .

얼마 있다,

구보는 다시 걷기로 한다. (『구보』 159-76)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뚜렷한 갈등구조를 내포한 사건이 부재하며 시간의 흐름 또한 불연속적인 채, 도시 일상에 대한 단편적 구성”(전우형 104)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 문단을 시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파격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즉,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통상적인 문장으로 문단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 부사, 소유격, 그리고 부사구만으로 문단을 시작한다. 또한 ‘그러나, 돌아와, 채 어머니가 무어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입때 안 주무셨어요, 어서 주무세요, 그리고 자리옷으로 갈아입고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펴 논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쉼표를 적재적소에 자유롭게 사용함

으로써 여러 문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서도 깔끔한 의미 전달을 해낸다. 또한 ‘입때 안 주무셨어요’와 같이 직접적인 대화로 구성해야할 구절을 문장 중간에 그대로 삽입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의 글쓰기는 전통적인 방식의 글쓰기와는 많은 차이를 드러낸다. 즉, “박태원의 글쓰기는 ‘외래적인 것’ 즉 타자의 발견과 흡수 그리고 재창조”(김미지, 『1930년대』 281)⁸⁾의 측면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박태원의 혁신적인 서사 기법은 단지 모더니즘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앞서서 살펴보았던 조이스가 즐겨 사용했던 ‘백과사전식 단어 나열’이나 ‘신조어 만들기’를 활용하여 병명을 나열하는 장면은 당대 피식민지민들의 정신적 피폐화를 회화화시켜 강조한다. 이것은 ‘말장난’이나 새로운 기법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꺾박 하에서 의식적으로 병들어가는 경성의 거리와 경성 사람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태원의 탁월한 언어 감각, 그리고 기존의 언어나 서사 방식을 거부하는 혁신적인 서사 실험은, 당대의 식민지 현실을 보다 드러내기 위한 장치인 동시에 그러한 식민지 현실을 문학적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한 것이었다.

이처럼, 박태원은 “우수한 언어적 감각과 세계 문학 조류에 대한 이해”(방민호, 『경성』 219)⁹⁾를 통해 세계문학의 다양하고 복잡한 흐름들을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단지 피상적인 모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서사 방식을 구축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제임스 조이스와 견줄만한 혁신적인 문학적 성과물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V. 나가며

올해(2016년)는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가 비록 노벨 문학상은 아니지만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부커상(The

8) 논문 제목은 「1930년대 문학 언어의 타자들과 ‘조선어’ 글쓰기의 실험들」임.

9) 논문 제목은 「경성 모더니즘과 박태원 문학」임.

Man Booker International)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문학 역시 세계 문학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젖힌 뜻 깊은 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작가 가운데 하나인 제임스 조이스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임스 조이스와 필적한 만한 작가인 박태원에 대한 비교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영국 제국주의 지배하의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조이스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어린 스티븐이 자신보다 힘이 센 학생들이나 권위를 가진 신부님들로부터 당하는 부당한 폭력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당대의 제국주의 강대국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약소국 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을 알레고리적으로 풍자하여 드러내었다.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정립해 가는 스티븐의 정신적 성장 과정을 통해 그가 점차적으로 ‘강자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조이스는 궁극적으로, 힘의 논리를 앞세워 약소국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적 논리에 대한 해체를 시도하였다. 카사노바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이스의 ‘완전히 새로운 언어’나 ‘혁신적인 이슈와 미학’은 탈식민주의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의 장에서 조이스의 아일랜드 문학이 당당히 자리 잡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조이스의 문학적 성과는 적어도 문학의 장에서는 아일랜드 문학이 제국주의 영국을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조이스와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의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나 『천변 풍경』 같은 텍스트들은 수도 경성을 배경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수탈의 양상을 날카롭게 포착하였다. 박태원은 더 나아가 제국주의 일본의 수도인 동경을 배경으로 한 「딱한 사람들」과 「사흘 굶은 봄 달」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탈식민주의적 주제를 드러내었다. 또한 박태원 역시 조이스와 마찬가지로 언어나 서사 방식에 대한 혁신적인 실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인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하고자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자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박태원이 이룬 문학적 성과물은 조이스 문학의 성과물과 비견할만한 가능성을 충분히 드러내었다.

그러나, 박태원의 문학적 성과물이 세계 문학의 무대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의 텍스트들과 문학 이론들이 현 시점에서 국제어인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

의 대표 텍스트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천변 풍경』에 대한 제대로 된 영문 번역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박태원의 텍스트들에 대한 번역 현황은 김명석에 따르면, 1940년 일본에서 「최초인전초록」을 비롯해 「거리」, 「길은 어둡고」가 번역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건의 번역이 진행되었으며, 『천변 풍경』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일역본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출간되었다. 영문 번역본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A Day In the Life of Kubo the Novelist* 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박선영이 번역하여 코넬 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했고, 『천변 풍경』은 *Scenes from Ch'önggye Stream* 이라는 제목으로 김옥영이 번역하여 스텔리온 출판사(Stallion Press)를 통해 2012년에 싱가포르에서 출판하였다(김명석 8-9). 세계 문학의 장에서 박태원 문학이 가지는 잠재성에 비추어 볼 때, 그의 텍스트들에 대한 현재의 번역 현황은 매우 척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계 문학 무대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의 성과와 비견될만한 박태원의 텍스트들에 대한 영문번역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외국어대)

인용문헌

- 권은. 「제국-식민지의 역학과 박태원의 ‘동경(東京) 텍스트’」. 『서강인문논총』, 41권, 2014, pp. 353-84.
- 김명석. 「박태원 소설의 해외 번역 출판 연구」. 『인문학연구』, 50권, 2015, pp. 7-38.
- 김미지. 「1930년대 문학 언어의 타자들과 ‘조선어’ 글쓰기의 실험들」.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60권, 2013, pp. 265-85.
- _____. 「박태원의 외국문학 독서 체험과 ‘기교’의 탄생」. 『박태원 문학의 현재와 미래』. 깊은샘, 2010, pp. 73-96.
- _____. 「한 전업 글쟁이의 마침표 없는 붓 달리기」. 『작가세계』, 21권 4호, 2009, pp. 87-104.
- 김정화.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동경 체험의 양상 고찰」. 『우리어문연구』, 51권, 2015, pp. 331-60.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학과 지성사, 2005.
- _____. 『성탄제 외』. 동아출판사, 1995.
- _____. 『천변풍경』. 현대문학, 2011.
- 방민호. 「1930년대 경성과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박태원 문학 연구의 재인식』. 예옥, 2010, pp. 165-200.
- _____. 「경성 모더니즘과 박태원 문학」. 『구보학보』, 9권, 2013, pp. 197-225.
- _____.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개체성의 인식과 표현」. 『구보학보』, 8권, 2012, pp. 37-79.
- 백문임. 「모더니즘과 공간: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1996, pp. 481-501.
- 변찬복.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도시산책 모티브의 양상」. 『일본근대학연구』, 44권, 2014, pp. 191-217.
- 송기섭. 「구보의 일상과 자화상」. 『박태원 문학의 현재와 미래』. 깊은 샘, 2010, pp. 241-62.
- 오현숙. 「1930년대 식민지와 미공의 심상지리」. 『박태원 문학 연구의 재인식』. 예옥, 2010, pp. 114-40.

- 유철상.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계열 소설의 창작 동기에 대하여』. 『우리말글』, 56권, 2012, pp. 689-716.
- 윤지관. 『세계문학을 향하여』. 창비, 2013.
- 이정석. 「아쿠타가와를 매개로 본 이상과 박태원의 문학」. 『한중인문학연구』, 28권, 2009, pp. 357-80.
- 임미주. 「천변풍경의 정치성연구」. 『구보학보』, 10권, 2014, pp. 229-47.
- 전우형. 「구보의 카메라눈(knoglaz), 다큐멘터리 형식의 문학적 실험」. 『박태원 문학과 창작 방법론』. 깊은샘, 2011, pp. 101-26.
- 정현숙. 「1930년 도시 공간과 박태원 소설」. 『현대소설연구』, 31권, 2006, pp. 53-72.
- _____. 「박태원 소설의 내부텍스트성 연구」. 『인문과학연구』, 27권, 2010, pp. 281-300.
- 조은주. 「박태원과 이상의 문학적 공유점 - 거울과 음악, 산책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3권, 2007, pp. 251-82.
- 카사노바, 파스칼. 「문학의 세계화의 길, 노벨 문학상」. 『경계를 넘어서 글쓰기』. 민음사, 2001, pp. 323-41.
- 홍혜원.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과 탈식민주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7권, 2005, pp. 227-43.
- Ashcroft, Bill, et al. *The Empire Writes Back*. Routledge, 1989.
- Brivic, Sheldon. "Gender Dissonance, Hysteria, and History in James Joyc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JJQ*, vol. 39, no. 3, Spring 2002, pp. 457-76.
- Bulson, Eric.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James Joyce*. Cambridge UP, 2006.
- Castle, Gregory. "Coming of Age in the Age of Empire: Joyce' Modernist Bildungsroman." *JJQ*, vol. 40, no. 4, Summer 2003, pp. 359-84.
-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UP, 1995.
- Duffy, Enda. "Setting: Dublin 1904/1922." *The Cambridge Companion to Ulysses*, edited by Sean Latham, Cambridge UP, 2014, pp. 81-94.
- Gilbert, Bart Moor. *Postcolonial Theory*. Verso, 1997.
- Hawes, Marjorie. "Goodby Ireland I'm going to Gort." *Semi-colonial Joyce*, edited

- by Derek Attridge and Marjorie Hawes, Cambridge UP, 2000, pp. 58-77.
- Hepburn, Allan.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d Poverty." *JJQ*, vol. 42-43, Fall/Summer 2006, pp. 197-218.
- Joyce, James. *James Joyce: Occasional, Critical, and Political Writing*. Oxford UP, 1993.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1992. Abbreviated as *P*.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ited by Richard Ellmann, Viking, 1975.
- Kershner, R. Brandon. "History as Nightmare: Joyce's Portrait to Christy Brown." *Joyce and the Subject of History*, edited by Mark A. Wollaeger et al., Michigan UP, 1996, pp. 27-46.
- Lewis, Pericles.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Modernism*. Cambridge UP, 2007.
- Milesi, Laurent. Introduction: Language(s) with a Difference. *James Joyce and the Difference of Language*, edited by Laurent Milesi, Cambridge UP, 2003, pp. 1-20.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UP, 1977.
- Spivak, Gayatri C. "Can the Subaltern Speak."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edited by Patrick Williams and Laura Chrisman, Columbia UP, 1994, pp. 66-111.

Abstract

Post-Colonialism and World Literature in the Texts of James Joyce and Park Tae-won

Youngshim Lee

This article analyzes the close co-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post-colonial elements and those of world literature focusing on the two writers: James Joyce and Park Tae-won. Especially, this article interprets Joyce's *The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s a kind of allegory which reveals the complex post-colonial relationship between the imperial England and the suppressed Ireland. In other words, Stephen, figuratively representing the weak, experiences the various violent behaviors by the people metaphorically standing for the strong such as Wells, Heron, Father Dolan, and Tate. His sufferings, like being shouldering into a square ditch, being insulted in front of his classmates, getting the corporal punishment, and being called as a heretic, derive from the fact that Stephen is weaker than those people who wield the unfair, unjust, and wrongful violence against him. This allegoric interpretation of the text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re are lots of words in the text which are related with the complex colonial situation of Ireland including the countless fighters for its independence from England and the historic uprisings against the imperial England. Furthermore, this article analyzes Park Tae-won's four texts including *A Day of Mr. Gubo a Novelist* and *ChunByunPoongKyung* from the same prospective. In fact, Park Tae-won was also born in a country which was under colonialism, albeit Japanese Imperialism. Thus, it is no wonder that his texts strongly reveal the post-colonial consciousness and his various innovative experiments regarding the language and the style are related to his desire to overcome the Japanese imperial power over his own nation. These common elements in the texts of two writers can offer an possibility for Park

Tae-won's texts to enter into the World Literature likewise James Joyce's.

■ **Key words**: post-colonialism, imperialism, *A Day of Mr. Gubo a Novelist*, *Chunbyun PoongKyung*, *The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탈식민주의, 세계문학, 젊은 예술가의 초상,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천변풍경)

논문접수: 2016년 11월 17일

논문심사: 2016년 12월 16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6일